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문화전승관 헌공불사

축 사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의 개관을 축하합니다.

진각종은 창종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주 일요일을 자성일로 삼아 진여본성인 자성을 참회와 수행으로 밝히는 수행종단입니다. 특히 생활불교의 실천을 위해 심인당에서,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진언의 참된 소리로 자신을 성찰하고 밝히는 수행정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골은 이어짐은 반세기를 넘어 백년을 향한 수행정진의 서원으로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각문화전승원의 개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옛 것을 계승하여 현재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의 가치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는 분별을 떠난 무분별의 가치를 중시하며 나의 존재 의미를 상대자의 존재 가치로 밝히는 연기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연기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을 인과의 법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 이는 불교 수행의 근본입니다. 나아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떨쳐내는 수행이자 생활불교를 이끄는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 근본 가르침을 수행으로 잇는 밀교종단이 바로 대한불교진각종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활불교의 실천을 함께 나누고자 진각문화전승관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한 진각종단의 스승님과 불자여러분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그릇에는 저마다의 서원이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의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세인의 문화가 되어 공감의 불교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공감하는 불교를 위해 노력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타인을 놓아버리고 나의 존재를 강조하는 어리석음의 과거가 있기도 합니다. 조계종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정과 쇄신의 결사로 다가서는 불교, 공감하는 불교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단을 떠나, 종교를 떠나 그리고 분별을 떠나 공감의 불교 가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공감은 상대자를 이해할 때 생기는 불교의 힘이자 상의상관의 연기적 가치를 나눌 때 생기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오늘 진각문화전승관 헌공불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불교미래의 발전적 서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동참하는 생활불교의 수행실천으로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공감하는 불교문화의 길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으로 정진하듯 자정과 쇄신의 공감을 우리사회의 문화로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문화전승관의 개관을 축하하며 원력과 신심으로 공감의 불교를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0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